

“아기 왜 우는걸까”... 초보 엄마, AI에게 물어봐!

AI 기업사

인공지능 육아서비스

강수경 아이앤나 대표

아이를 처음 키우는 초보 엄마들은 아기가 울면 당황스럽기 마련이다. 아기가 배가 고플지, 졸린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해서 울던 아기에게 배가 고플 것 같아 분유를 먹였는데 토를 하면 초보엄마는 놀라서 병원에 달려가기도 한다.

AI 기반 육아플랫폼 기업인 아이앤나는 인공지능(AI)으로 아기 울음소리를 5가지로 분류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해 초보엄마들의 고민을 덜어줄 전망이다.

강수경 아이앤나 대표는 “신생아 울음소리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AI 아기 울음소리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상반기 안에 ‘AI 보모’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아기들이 특정한 상태에 있을 때 우는 소리가 공통된 주파수를 가진다는 사실을 AI 분석으로 밝혀냈는데, 주파수 분석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법대와 사범대를 졸업한 강대표는 IT 컨설팅회사인 액센츄어구

엔더슨컨설팅)에 입사해 컨설턴트로 근무했으며, 디아지오코리아에서는 조직관리 전문가로 일했다. 그는 아이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 수년간 일을 쉴 때도 틈틈이 회사 컨설팅 업무를 맡아 진행하기도 했으며, 올해 카이스트의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대학원에서 ‘AI가 육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논문을 썼을 정도로 AI 등 IT가 육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많았다. 강 대표는 지난해 말 아이앤나에 공동대표로 입사해 마케팅, 비즈니스 전략 등 사업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이경재 대표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으로 건물자동제어시스템으로 장영실상을 수상한 바 있는 유능한 개발자인 만큼 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광운대와 공운으로 AI 소리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아이앤나의 AI 보모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구매해야 한다. “기기의 카메라를 통해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아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기를 아기 요람에 붙이거나 세워두면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석해 아이의 상태를 구분해 줘요.” 아이앤나는 이미 기기에 대한 K C인증도 획득했다.

기기에서 수집된 소리 중 아기 음성만을 감지해 서버에 보내주고 음성을 AI가 분석한 결과를 앱이나 기기에 내장된 스피커로 알려준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졸리다, 배가 아프다, 기저귀가 젖었다, 몸이 불편하다, 배가 고플다 등으로 구분된다. 또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아이를 지켜보던 할머니가 ‘엄마 곧 돌아와. 조금만 기다려’와 같은 말을 스피커로 전할 수도 있다.



아이앤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통해 수집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석해 5가지 상태 중 하나로 분석해주는 ‘AI 보모’ 서비스를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아이앤나

아기 울음소리 AI가 학습해 주파수 분석 5가지로 분류... ‘AI 보모’ 상반기 서비스 국내 출시 후 동남아 등 해외진출 계획도

산후조리원 CCTV ‘아이보리 베베캠’ AI가 아기 배냇짓 인식해 부모에 알림

”



강수경 아이앤나 대표 /손진영 기자 son@

그는 “AI 학습을 위해서는 아이 울음소리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산후조리원에서 설치된 CCTV를 통해 아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아이보리 베베캠’ 서비스를 수년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신생아들의 수많은 울음소리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앤나는 2017년 6월 설립 후 SK브로드밴드와 기술 제휴를 맺고 저장장치가 별도로 필요 없는 클라우드 기반 CCTV를 산후조리원에 설치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서비스가 설치된 조리원은 180여개에 달한다.

신생아 침대마다 CCTV가 1대씩 설치돼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한 카메라만 3700여대예요. 산후조리원에서 요청해 설치 완료되면 입실하는 엄마들은 ‘아이보리 앱’만 설치하면 아이를 볼 수 있어요.”

아기의 데이터는 보안이 중요해 아기엄마가 최대 5명에게만 아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 아이 영상은 무료

로 볼 수 있지만, 영상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구매권을 사용해 15초 단위로 동영상 내려받을 수 있다.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해 아기 표정이 언제 바뀔지 몰라 계속 다운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산후조리원은 감염 위험이 커 부모 외에는 산후조리원을 방문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아빠도 제한적으로 출입이 돼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베베캠을 좋아하세요.”

그는 아이의 배냇짓을 보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AI가 아이의 배냇짓을 인식하면 부모에게 알림을 줘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이앤나는 또 임신육아교실도 운영하고 있으며 앱과 연계해 ‘베베몰’도 운영하고 있다. “저희 회원들에게 시중보다 5~10% 이상 싼 가격에 육아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라는 점을 입증하고 회원으

로 가입해야 해요. 이번에 코로나19로 베이비 페어가 취소되면서 ‘온라인 베이비 페어’를 개최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좋은 아이템이 뜨면 카페에 서로 공유하다보니 쇼핑물 판매량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분유·백신 등 광고도 늘어, 베베몰이 상반기에 손익분기점(BEP)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 대표는 아이앤나가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근 신한퓨처스랩 스타트업 6기로 선발된 만큼, 올해 말경에 신한과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 벤처캐피탈(VC) 등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투자를 받으면 기술 개발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기업들 중에 아직 수익을 내는 곳이 드문데 저희는 AI 육아 서비스로 바로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국내에서 AI 보모 등 기술을 검증받으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해외에도 진출할 생각이예요.”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LG생활건강, 로봇 직원 ‘알 파트장’ 채용

237명 투입 업무 로봇 8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박차

LG생활건강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업무자동화(RPA) 시스템을 ‘알 파트장’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프트웨어로봇 알파트장은 사람이 컴퓨터(PC)로 처리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학습해 PC에서 이뤄지는 정형화되고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다. 사내에서 빈번하게 작업하는 엑셀 업무와 특정 전산시스템의 조회 및 다운로드, 입력은 물론이고 메일 송·수신이 가능해 최종 결과 자료를 담당 임직원에게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알 파트장은 영업,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부서에서 총 8대가 활약하고 있다. 이들(알 파트장 1~8)은 정식 인사 등록까지 마쳐 사내 통신망에 ‘인명(동료)’으로 검색되고 알 파트장의 도움이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는 게시판도 최근 개설됐다.

현재 LG생활건강에서 알 파트장이



LG생활건강 본사가 위치한 LG광화문빌딩

수행 중인 업무는 249개로, 237명이 연간 총 3만9000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실적 보고, 매출 및 주문 처리 등 수작업이 많은 영업 영역에 집중적으로 활용돼 영업사원이 본연의 업무인 영업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알 파트장의 업무 성공률은 RPA 최고 수준인 95%를 기록하며 점차 모든 부서에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수작업 업무는 알 파트장이 인계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LG생활건강 RPA 운영 담당자는 “단순·반복 업무는 로봇이, 인지·분석 업무는 사람이 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업무 혁신과 고도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넷마블, 마블과 맞손... 美 게임쇼서 ‘깜짝발표’

‘마블 퓨처파이트’ 이어 두 번째 행사 마지막날인 내달 1일 공개

넷마블은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미국 보스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북미 게임쇼 ‘팍스 이스트 2020’에서 마블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 마지막날인 내달 1일 ‘마블 미스터리 패널’라는 이름의 세션이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넷마블은 마블과 함께 하는 새로운 게임을 공개한다.

‘마블 미스터리 패널’에는 넷마블 북



미법인장 ‘심철민’, 마블 게임즈 부사장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빌 로즈만’, 마블 게임즈 프로덕션 디렉터 ‘대니 쿨’, 마블코믹스 작가인 ‘마크 슈머라크’가 패널로 참가하고, 마블 뉴 미디어의 CEO이자 부사장이 ‘라이언 페나고스’가 사회자로 나선다.

지난 2015년 넷마블은 마블과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마블 퓨처파이트’를 출시해 전세계 1억20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프로젝트는 넷마블과 마블이 공동 작업한 두 번째 게임이 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보스턴 매년 열리는 팍스 이스트는 메이저 게임 전시회 중 하나다. 신작 전시, 게임 대회, 코스튬플레이 등 이용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진행해 ‘게이머들의 축제’라고도 불린다. /김나인 기자 silkni@

가스공, 대구에 마스크 7만장 기증

중소·소상공인 대상 상생펀드도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시민들을 위해 마스크 7만3000장을 지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에 집중 확산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을 위해 2억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

다. 가스공사는 먼저 기부금 2억원으로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인 마스크 6만 7340장을 구입해 대구시에 기증한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약 3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마스크 5700장과 살균소독제 570개를 구매했다. 이 물품들은 이달 26일 대구 전역의 노인복지시설 19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특별 지원을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확진자 발생지역 내 영업장 보유 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 곳당 5억원을 한도로 최대 2.7%까지 금리 감면(기본 1.5%, 추가 1.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